

“나에게는 쉽터, 가족에게는 추억일기”

20년간 드로잉일기 쓴 서양화가 정정임



20여년간 글 대신 그림을 그려 일기를 작성해오고 있는 정정임 작가가 자신의 드로잉노트를 들여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오늘도 그녀는 노트를 꺼내고 펜을 잡는다. 그날 그날 본 것, 느낌, 생각 등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떠올린다. 머릿속 이미지를 나름대로의 재해석 과정을 거쳐 그린다. 노트 한장에 그려진 그림은 하루의 기록이자 추억으로 남는다.

서양화가 정정임(56) 작가는 지난 20여년간 드로잉 일기를 쓰고 있다. 엽서 두배 크기만한 까만색 표지의 드로잉노트에 글을 쓰는 대신 그림을 그리며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다 써 보관하고 있는 노트만 수십여권. 만화처럼 그림 여러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미지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 작가는 “딱히 주제나 소재를 정하지 않고 일기를 쓰는 것 처럼 그때그때 생각이나 경험, 느낌을 그리고 있다”며 “20여년간 그리다 보니 습관이 되버려 매일 펜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작가의 드로잉일기에는 카메라, 가방, 꽃, 선인장, 길거리에서 지나쳐간 할머니, 자신의 손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쉽게 잊혀지는 것들이 담겨있다. 간단한 메모가 적혀있거나 아예 없는 것도 많다. 예를 들어 시골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호를 그려놓은 뒤 그 아래에 ‘휴식, 편안함’이라는 글귀를 적었다. 화려한 채색 없이 펜으로 스승 그린 그림이다. 각종 색으로 가득찬 정적 작품과 달리 여백이 살아있는 드로잉일기는 여유가 넘친다.

“창작은 진기(眞氣)가 빠지는 일이라 말개는 6~7시간 작업을 하다 고개를 들면 온몸이 아프다. 드로잉은 일종의 휴식 개념이다. 시간도 3~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드로잉일기는 정씨에게 마음의 쉽터다. 그래서 일기와 창작에 엄격하게 선을 그었다. 일기에 그려진 소재를 작품에 활용한 경우는 없다.

“창작의 고통 달래준 휴식”

20년 그린 노트만 수십여권

獨 갤러리 제안 내년 개인전



정씨는 어린 적부터 미술에 관심이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교과서 표지 뒷면에 늘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드로잉일기를 시작한 연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학때 드로잉을 전공한 이후 1990년대 초반 결혼과 출산, 양육으로 작품활동을 쉬게됐다. 어린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물감을 이용한 작업은 상상도 못했다. 그때 생각난 게 펜이었다. 이전에도 가끔씩 스케치 등을 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일기를 그리기 시작한 건 이

무렵부터였다.

정씨는 “순전히 손가락 풀기로 시작했는데 평생 취미가 되버렸다”며 “작품과 달리 진솔한 이야기를 다뤄 어떤 때는 이게 진짜 내 작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회상했다.

이제는 훌쩍 커버려 20대가 된 두 아들은 엄마의 드로잉 일기가 큰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아들들의 10살 생일때, 결혼 10주년때 등 드로잉일기는 정씨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추억을 떠올리게하는 도구다.

이런 정씨의 특별한 취미를 독일 뮌스터 갤러리가 눈여겨봤다. 드로잉일기로 내년 개인전을 열자고 제안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 2004년 필름 아트페어 참가를 계기로 독일과 인연을 맺었다. 한국 전통 오방색을 이용한 그의 작품이 독일인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2012년 단체전, 2013년 개인전에 초대됐다.

정씨는 “한국에서는 이미지와 색채를 중요시 하기 때문에 드로잉을 연습·초보 단계로 격하하는 경향이 있다”며 “바스키아의 작품처럼 유럽에서는 명함, 담배갑에 그린 것도 잘 팔린다. 낙서·벽화 등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작가들이 전시회 등을 열때 단순히 작품만 출품할 것이 아니라 작가 개인의 이야기로 알려달라고 강조한다. 작품을 그린 이유, 과정, 느낀 점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드로잉일기는 더욱 각별하다.

훗날 생기기 될 손자·손녀 등 앞으로 그림 많은 이야기가 기대되기에 손에서 펜을 놓을 수 없다는 정씨. 자신의 좌우명처럼 드로잉일기는 언제까지나 ‘ing(현재진행형)’이다.

／클·사진=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축제로 읽는 세계 각국의 역사·문화와 민족성

전남대박물관 ‘문화전문도서’ 시리즈 ‘세계 축제의 향연’ 펴내

전남대학교 박물관(관장 표인주·국어국문과 교수)이 매학기 진행하는 ‘문화강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문화전문도서’를 간행하기로 한 가운데 시리즈 첫 번째 ‘세계 축제의 향연’(심미안)이 발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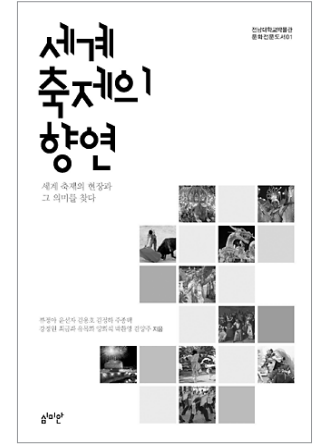
전남대박물관은 지난 16일 시작된 2015학년도 2학기 문화강좌 주제 ‘세계축제의 향연’도 향후 진행되는 강좌와 연계해 ‘문화전문도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 ‘세계 축제의 향연’은 축제를 통해 세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게 특징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축제의 관련성은 물론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 각국의 축제의 형성과 변화, 의미까지 담았다.

“축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여가활동의 소재이거나 여흥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사회, 창조도시, 지역발전의 주요 기제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저자로 참여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연구위원이 제시하는 축제의 의미와 방향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우수축출 펼쳐지는 축제의 단면들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 나물애 그 밥’인 경우가 많아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지자체의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번 책에는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양희석



교수와 강정원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박영영 중앙대 아시아 문화학부 교수, 주종택 순천향대 국제문화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저자들은 중세 말과 르네상스 시기 광인의 축제, 스페인의 축제문화와 민족성, 이탈리아·라틴아메리카·시베리아·중국·몽골 등의 축제를 통해 각 축제의 역사와 정체성이 어떻게 지역과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진정한 ‘축제-되기’란 어떤 것인가를 심도 있게 탐색한다.

표인주 박물관장은 “문화전문도서는 관련 분야 내로라 하는 석학들을 초청해 운영하는 문화강좌의 단순한 자료집 개념을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전문도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문학으로 풀어낸 광주의 오월 김상봉 교수 초청 특강

광주전남작가회의 내일 서구청 강당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조진태)가 11월까지 ‘역사에 있는 감성의 인문학’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가운데, 5·18사적지를 인간의 보편적 감성으로 풀어내는 특강을 마련했다.

23일(오후 4시~6시) 광주시 서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에는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사진) 교수가 나서, ‘철학의 현장’ 주제로 광주의 오월을 인문학으로 풀어낸다. 김 교수는 무사유의 시대에 철학의 존재 이유와 5·18의 본질을 철학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김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을 ‘서로 주체성’이 집약된 표현이자 실현이라고 강조한다. ‘서로 주체성’이란 모두가 동시에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주체와 객체가 분리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모두가 더불어 자기들을 주체적으로 정립한 시간, 그것이 바로 5·18의 역사적, 철학적 의미라고 규정한다.

한편 김 교수는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철학과 고전문헌학, 신학을 공부하고 이마누엘 칸트의 ‘최후 유작’에 대한 연구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만남의 철학’, ‘철학의 현장-5·18을 생각함’, ‘서로 주체성의 이념’, ‘호모에티쿠스’ 등을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여성재단 중간리더 역량강화교육 20명 모집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은 지역공동체 활동가들과 함께 중간리더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한다. ‘몸과 마음의 심포니 디자인하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오는 10월 12일~16일까지 여성재단 강의실 등에서 열린다.

민양윤 풀뿌리여성마을숲 공동대표, 이주환 일하는 여성아카데미 원장 등이 ‘건강한 삶을 위한 메시지’, ‘의사소통의 본질 이해’ 등에 대해 강의한다.

15~16일 1박2일 동안 진행되는 ‘휴(休)’ 프로그램에서는 ‘표현예술 치유 기법을 통한 소통’, ‘만다라 치유 춤을 통한 내 몸 안의 리듬과 관계 자각’ 등을 주제로 최박미란 춘해보건대학 외래교수가 워크숍을 진행한다.

모집 마감은 오는 10월8일까지다. 신청수 20명을 모집하며 교육비는 2만5000원이다. 문의 062-670-050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한민국 모두가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 **몸신**이다

이용식 엄영란

조인희 변우민

MC / 정은아

CHANEL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16**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스카이라이프 **13**

IPTV **18**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